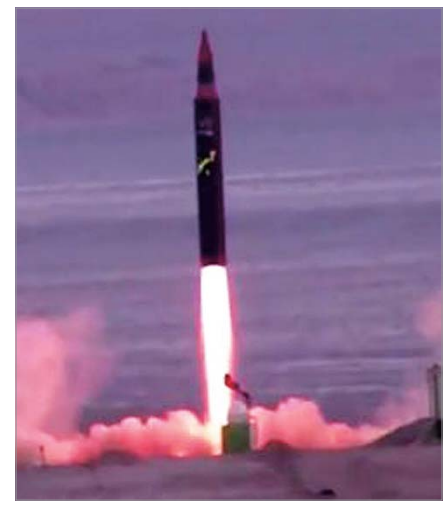
미 해군이 보유한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윈스턴 처칠함이 독립작전 수행을 시작했다. 윈스턴 처칠함은 영국 해군 장교가 배속된 유일한 미국 함정으로 강력한 화력과 항공 전력을 갖추고 있다. 윈스턴 처칠함은 독립작전을 위해 최근 다른 함정들과 함께 태스크포스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서는 강력한 탄도미사일인 코람샤흐르 미사일의 시험 영상이 공개됐다. 유럽 국가들은 이 미사일이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인 소형 재진입체(RV)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의 경우 중거리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이 미사일과 비슷한 샤하브-3 미사일에 코람샤흐르의 이름이 적힌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 브라질 방산기업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항공기(UAV)를 개발,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업은 그동안 개발된 경쟁 모델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UAV를 판매, 브라질은 물론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맹수열 기자

미 해군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윈스턴 처칠함. 출처=navyrecognition.com



소형 재진입체(RV)를 장착한 이란의 코람샤흐르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 모습. 출처=janes.com

미국 해군 윈스턴 처칠 구축함 독립작전 수행 위해 출항

통합작전 임무태세·수행능력 확인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인 윈스턴 처칠(DDG-81)함이 독립작전 수행을 시작했다. 미 국방부는 윈스턴 처칠함이 미국과 동맹국·협력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독립작전을 위해 최근 출항했다고 밝혔다.

윈스턴 처칠함은 최근 다른 미 해군 함정, 동맹국 군함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훈련(TFEX)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전개 함정을 위한 인증연습인 TFEX는 통합된 작전에서 임무 준비태세 및 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윈스턴 처칠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처칠 영국 총리의 이름을 딴 함정이다. 함정에는 미국 성조기와 함께 영국 해군 군함기가 게양된다. 이는 미국 해군과 영국 해군의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특히 함정 내 영국 해군 장교가 배치되는 유일한 미국 함정이기도 하다.

알레이 버크급 31번째 구축함인 윈스턴 처칠함은 62구경 마크 45(Mark 45) Mod 4 해군 함포체계를 장착한 첫 플라이트-IIA형 함정이다. 이 함포는 더욱 긴 포열을 이용해 추진제를 더욱 완벽하게 연소시킴으로써 섬광을 줄이고, 탄체 속도와 화력을 개선했다. Mk 45 Mod 4 함포는 개량형 포탑을 사용하며 레이더 노출 특징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됐다.

이 밖에도 25㎜ Mk 38 자동포 2문, 12.7㎜ 기관총 4정, 20㎜ 팔랑크스(Phalanx) 체계 2대, Mk 32 Mod 11 3중 어뢰발사관 2대, RIM-66 함대공 미사일2,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RUM-139 VL-ASROC 대잠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체계(VLS) 등도 무장으로 갖추고 있다.

윈스턴 처칠함에는 70스파르타 해양타격헬기전대(HSM)가 전개돼 있다. 전대는 경량 공중 다목적체계(LAMPS)인 시코르스키(Sikorsky)사의 SH-60B와 MH-60R 시호크 헬기 등을 운용하고 있다. 헬기에는 수상함 공격용 공대함 미사일과 잠수함 공격용 어뢰가 장착됐다.

브라질 무장형 중고도 장기체공 UAV 개발

정보·감시·정찰 업무…내년 3월 시험 마무리

브라질 방산기업이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항공기(UAV) 개발에 성공했다. 브라질 UAV 전문 제작업체인 스텔라 테크놀로지아의 길베르토 부파라 주니어 에우데스 대표이사는 최근 "전술용 중고도 장기체공 UAV인 '아토바'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토바 UAV의 시제품은 현재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2021년 3월 시험을 마칠 예정이다. 스텔라 테크놀로지아는 이와 함께 3대의 추가 UAV를 제작하고 있다.

브라질 스텔라 테크놀로지아가 개발한 무장형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항공기(UAV) 아토바. 출처=Jane's Defence Weekly

아토바 UAV는 공대지 무기를 탑재한 채 정보·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스텔라 테크놀로지아는 브라질 군과 국토안보부대의 주문을 고려해 아토바 UAV를 개발했다. 회사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도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스텔라 테크놀로지아는 잠재적인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1년 6월쯤에 아토바 UAV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토바 UAV는 길이 8m, 날개폭 11m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500㎏이다. 체공시간은 28시간이며 무장하지 않고 비행했을 경우 1만5000피트 상공에서 250㎞를 비행할 수 있다. 엔진으로는 60마력 HKS 700E를 사용하고 있으며 3륜 착륙장치, 전자광학·적외선 장비, 데이터링크, GPS가 장비돼 있다. 스텔라 테크놀로지아는 아토바 UAV의 이착륙을 효율화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 공군은 이스라엘로부터 구매한 비무장 헤르메스 450, 헤르메스 900, 헤론 1 중고도 장기체공 UAV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시된 아토바 UAV는 브라질뿐 아니라 저렴한 예산으로 UAV 능력을 갖추길 원하는 나라들의 소요를 충족시키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란 코람샤흐르 탄도미사일 시험 담은 새 영상 공개

소형 재진입체 갖추고 40㎡ 범위 표적 타격

이란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인 코람샤흐르 미사일의 시험을 보여주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인 소형 재진입체(RV)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은 최근 코람샤흐르 미사일이 40㎡ 범위의 표적 지역을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정부는 소형 RV를 장착한 코람샤흐르 미사일이 시험에 앞서 테헤란에서 공개 전시됐다는 주장을 담은 공동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세 나라는 이 RV는 코람샤흐르 미사일보다 위력이 약한 샤하브-3 시리즈 미사일에 사용되는 에마드 조종형 RV와 크기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람샤흐르 미사일의 중량이 750㎏인 샤하브-3 미사일보다 2배나 무겁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미사일이 더 작은 RV를 탑재할 경우 최대 사거리를 2000~3000㎞로 늘려 중거리 미사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마드 RV는 종말 단계에서 유체역학적 조종을 위해 날개를 사용, 항력을 증가시킨다. 이 때문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쉽게 요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주장처럼 코람샤흐르 미사일이 날개가 없는 대신 추력장치를 갖춘 더 작은 RV를 구비한다면 미사일은 더 먼 거리에서 더 빠르게 궤도를 바꿀 수 있다.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과는 별개로 소형 RV를 장착한 코람샤흐르 미사일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사진도 유포되고 있다. 이 미사일은 영상에 포착된 미사일과 같은 색으로 도색돼 있으며 페르시아어로 '코람샤흐르-2'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에마드 RV를 장착한 샤하브-3 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해 등장하는 것은 코람샤흐르 미사일의 실체에 혼동을 주기 위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자료 제공=기품원(글로벌디펜스뉴스)